

죄사함과 사랑

말씀 : 누가복음 7:36-50

요절 : 누가복음 7: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사역 종반부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갈릴리 2차 전도기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죄 사함과 사랑의 관계성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도 차갑고 냉소적인 바리새인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철철 넘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이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생각해 보고 예수님을 여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청했습니다. 보통 이런 식사초청은 마을의 행사로 치러졌는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구석에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머리를 식탁 근처로 향한 채 의자에 기대고 한쪽 팔꿈치로 하중을 받치고 발을 뒤로 뻗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 순서들이 생각되었습니다.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맨 먼저 그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와야 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 샌달을 신고 다녀 발이 매우 지저분했기 때문에 손님이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례였습니다.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은 다음 주인은 손님을 반갑게 맞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 입을 맞추는 인사인데, 서로의 볼을 어긋 맞대어 존경과 사랑의 의미, 적대감이 없이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는 마지막 순서는 올리브 오일을 머리에 한 두방울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머리에 윤기가 흐르게 하고, 지친 심신을 풀어주며, 향균 작용을 해주었습니다. 예

수님은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 왔지만 이런 모든 절차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잔치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냉랭한 분위기를 깬 여인이 있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 그 당시 일반적으로 ‘창녀’를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녀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세리 레위를 제자삼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눅5:30)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을 영접해 주시고, 준비한 향유를 받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오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마땅히 환영받으실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질 받는 공인된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사람들로 부터 쏟아지는 멧글 테러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땐 그냥 가만히 있는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도저히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잔치 한복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38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결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먼저 그녀는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결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야 하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많은 눈물을 떨어뜨

리며 울었습니다. 버림받거나 상처받아서 자기연민으로 울어본 적은 많아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인의 눈물은 과거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머리털을 사랑합니까? 미용실에 다녀와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힘들어 집니다. 형제들은 동역자의 머리스타일이 바뀌면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인은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45절을 보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해도 여인의 진심을 예수님께 충분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지극히 비싼 것(300데나리온)으로서 대개 당시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고이고이 간직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 올리브 기름대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설화수 한방울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화장솜에 묻힌 것이 아까워서 발에도 바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갖다 왕창 부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이러한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이 모든 행동을 가만히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여인의 행동은 아주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여자가 갑자기 식사하시는 자리에 나타나 눈물을 펴펴 흘리며 머리털을 풀고 발을 씻어주며 그 발에 끊임없이 입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부어댄다면 이는 누구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기간에 안철수후보는 지난날 조폭들과 찍었던 사진 한 장으로도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죄 지은 한 여인과 엮인다는 것이 유대인의 주류사회에서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죄 지은 여인 또한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녀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시고 전심으로 그녀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냉랭하기만 했던 식사자리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의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의 진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지, 그 감사와 사랑을 전혀 깨취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이 과거에 죄 많은 여인이었다는 사실, 거기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번 죄인이면 영원한 죄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인의 눈물도, 향유도 다 부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인이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사람 되었다 할지라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 다. 시몬은 여자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런 여자를 가만두는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 다.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텐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일행을 율법을 제쳐두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은혜패권주의”로 몰아 세웠습니다. 시몬의 눈에도 예수님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여인의 모든 행동을 허락한 천박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만 의롭다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 깨끗한 사람, 의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인의 죄가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인은 자신의 죄인 됨을 깊이 깨닫고, 죄사함을 베푸신 주님께 크게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속 생각과 판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사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1,4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5000만원을, 다른 사람은 500만원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500만원이나 5000만원이 아주 큰 것처럼 안보여도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되면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두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고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배 더 큰 금액을 탕감 받았으니 10배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옳다고 하시며 시몬을 교훈하십니다. 44-46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자를 들어 귀감을 삼으시며 시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적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중동에서 손님이 왔을 때 종이 발을 씻겨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발 씻을 물을 주어 식사 전에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기본 도리였습니다. 시몬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입 맞추며 환영을 표시하는 것도 사람을 맞이하는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식사에 초청한 손님의 머리에 흔한 감람유라도 한 방울 떨어뜨려주는 것이 또한 손님대접의 에티켓이었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 한 목자님은 시몬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이러려고 초청을 받았나”라고 민망하고 불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행동은 시몬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니다.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었고, 머리털이라는 최고급 타월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빵에 한 번도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몇 천 원 하는 식용유수준의 저가 향유가 아니라 옥합에 담긴 한 병에 몇 천 만원하는 최고가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최소한의 것만 하고 그 이상은 절대 하려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억지로 하며 강탈당하는 심정으로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것들로 주님을 섬깁니다. 넘치도록 섬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소중한 꿈이 담긴 것을 주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평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겸손하여 어떤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너무나 기쁜 마음과 얼굴로 합니다. 두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 7부에는 모두 이런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4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시몬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적은 사람,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랑의 많고 적음은 죄사함 받은 것이 많고 적음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7절 하반절을 볼 때 그녀의 죄는 사실 이미 사해졌습니다. 죄사함은 그녀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대가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아무 공로없이 주어집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그녀가 죄사함을 많이 받은 결과,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서 5: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사랑이 죄를 용서받는데서 나온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는 죄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발견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8:21-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6조입니다. 이는 사람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우리 모두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42절에서도 예수님은 비유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던 적던 간에 우리의 능력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빚진 흉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탕감 받은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이 그 은혜를 갚아먹어 버립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며 탐심의 종이 되어 살

있었습니다. 무익한 일, 속이는 일, 남을 죽이는 독사의 독같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였으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랐습니다. 그들은 화철한 무덤처럼 그 속에 죽은 것,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로남불이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 됨은 덮어 버리고 의인이라는 자기최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볼 때 너무나 더럽고 흉악하고 부끄럽고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더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영광을 구하며 교만하고 유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내면세계에 대한 발견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 과(果) 사람들은 자기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거울, 성령의 현미경과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들의 모든 삶과 내면세계를 다시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리 시간이 가고 성장할수록 더 흉악하고 더 못된 자기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의의 탑을 쌓아가지만 기독교는 성숙할수록 자신의 죄인 됨을 깊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애통하고 자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중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의 내가 과수니라”(딤후 1:15) 그는 자신이 현재적으로 죄인중의 과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의가 아닌 오직 긍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흉악한 죄인으로 지옥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라는 깊은 자기발견이 있고 또 이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합니다. 어떤 곳은 일, 낮은 일도 합니다.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히 죄인으로서 자기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위해서도 요구하지 않으며 낮아져 섬길 수 있습니다.

지난 전국학사수양회때 주제강의를 섬기신 유사무엘(덕종) 선교사님의 메시지는 삶에서 우러나온 메시지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복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의 영화로운 삶을

포기한채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서서 올해로 23년 동안 우간다와 스와질랜드에서 개척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이즈환자에게 사용한 바늘에 찔리기도 하였고, 6주간이나 폐결핵을 앓으며 체중이 51kg이나 빠져 드디어 천국에 가는구나 생각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서 딸 주은이가 병들어 숨을 몰아쉬다가 멈추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도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기도할 수 밖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힘든 아프리카 선교역사를 감당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허무와 절망으로 죽을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 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가 너무 큼니다. 저는 한국에도, 우간다에도 스와질랜드에도 제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나라에 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날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나에게서는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우리가 이시간 새롭게 값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깊이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사랑을 받으시고 죄사함을 다시 공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47) 이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죄 많은 여인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누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어 시몬처럼 자기의의를 쌓고 판단과 정죄로 냉랭한 인생한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죄사함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